

FUTURE SCHOOL
THE KOREAN PAVILION
LA BIENNALE DI VENEZIA
17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2021

미래학교 한국관

제 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2021

일시:

2021년 5월 22일—11월 21일

베니스 자르디니 한국관

오전 11시—오후 7시 (5월 22일 — 7월 31일)

오전 10시— 오후 6시 (8월 1일—11월 21일)

매주 월요일 휴관, 5월 24일, 9월 6일, 11월 1일 제외

예술감독:

신혜원

한국관 오픈닝:

2021년 5월 21일 정오 12시(베니스), 오후 7시(한국)

한국관 (Padiglione Coreano)

Giardini della Biennale, Castello 1260 30122 Venezia Italia

+

아르코미술관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www.korean-pavilion.or.kr

www.futureschool.kr

fsvb2021@gmail.com

인사말	6
서문	7
공간구성	9
미래학교 생성 대화	11
미래학교 온라인	13
전시 프로그램	15
참여자 정보	43
약력	44

인사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는 세계 최고의 예술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에 1995년부터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 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개관 직후 3회 연속 특별상 수상, 2014년 제14회 국제건축전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 위치한 한국관은 수많은 한국인 건축가, 예술가의 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신혜원 예술감독은 제17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 <Future School>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사유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지 전환의 계기를 심어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구축해온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한국 예술작품과 예술가를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한국관 전시를 위해 고생한 신혜원 감독과 전시추진단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행사를 진행하는 베니스비엔날레재단에도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은행과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후원사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위기 속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예술의 본연 가치가 널리 확산되는 행사, 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서문

미래학교란?

미래학교는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을 급진적 사유의 국제적 배양소로 전환한다. 따라서 더 나은 미래의 구축이라는 뜻을 적극 탐색하는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접하고 교류하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사람, 장소, 개념, 실천의 글로벌 연합체인 미래학교는 국경과 거리를 뛰어넘어 참가자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동시에 다종다양한 참여의 양식을 촉진한다. 미래학교의 최종 목표는 이주, 디아스포라의 확산, 기후변화의 충격, 사회적·기술적 변화의 속도 등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맞서 새로운 다중적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

캠퍼스 구조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기간 동안, 미래학교는 자르디니에 물리적 캠퍼스의 형태로, 전시, 워크숍, 설치, 대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 여기에 주요 커미션 시리즈를 통해 음향과 움직임, 음식과 음료를 비롯해 모든 참가자를 위한 약속문까지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이곳 베니스 캠퍼스는 세계 곳곳의 미래학교 캠퍼스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인 미래학교 온라인과 연결된다.

분과를 가로질러 모든 형태의 상호 참여를 육성한다는 목표는 한국관 현장의 유연한 활용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열린 주방, 원형 라운지, 그리고 한국의 전통 수제 종이인 한지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등이 편안한 가정집을 연상시키며 배움과 생활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래학교 온라인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하다. 미래학교 온라인은 정보 네트워킹과 진행 중인 협업 과정을 촉진하는 아카이브이자 능동적인 아키텍처이다. 여행과 밀접 대면이 까다로운 시기, 미래학교 온라인은 기술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에 접근하는 전 지구적인 협업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프로그래밍과 커리큘럼

참여 건축가, 교육자, 예술가, 이론가, 운동가들과 함께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행될 미래학교의 여러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은 모두 기존의 배움을 내려놓고 다시금 배우는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는 점차 성장하고 변화하는 전체 전시의 일환으로 기록되어 송출된다.

미래학교는 물리적 형태와 가상의 형태를 아울러 50여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시 환경 냉각에서 학교의 미래학, 혁신적인 공간 개입, 통합의 공간으로서의 경계 등에 이르는 이슈들을 탐색한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2020년 여름 서울에서 몇 가지 예비 프로그램으로 출범했던 미래학교 첫 학업 주기의 핵심을 이룬다. 2021년 건축 비엔날레 기간에 열릴 디자인 스튜디오, 강의, 세미나, 패널 토론, 전시 및 기타 교육적 개입 등의 프로그램은 이후 다시 서울에서의 마지막 '학기'로 마무리된다. 그간 생성된 아카이브를 더욱 포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더욱 혁신적인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신혜원

한국관 예술감독

공간 구상

열린 캠퍼스

집, 우물, 정원으로 이루어진 회합, 배움, 휴식과 명상을 위한 공유공간. 이것이 한국관에 자리 잡을 미래학교의 근본 구상이었다. 한국관은 소비의 공간이 아닌 생활, 교류, 토론을 위한 공간인 것이다.

한국관은 베니스 비엔날레 자르디니 공원에 세워진 독특한 구조물이다. 건축가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조의 설계로 1994~1995년에 지어진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인 부분은 기존의 벽돌조적 공중화장실뿐이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임시 구조물로 여겨지며, 부지의 큼지막한 나무들 사이로 지어졌다. 다시 말해, 일부 큐레이터들이 원할 만한 곧게 뻗은 벽에 채광이 조절되는 네모뎀듯한 박스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에 유리 벽과 의외의 곡선으로 이뤄진 햇빛이 잘 드는 투명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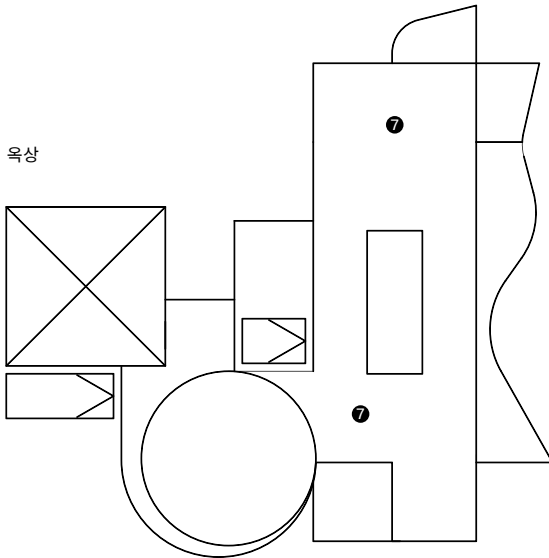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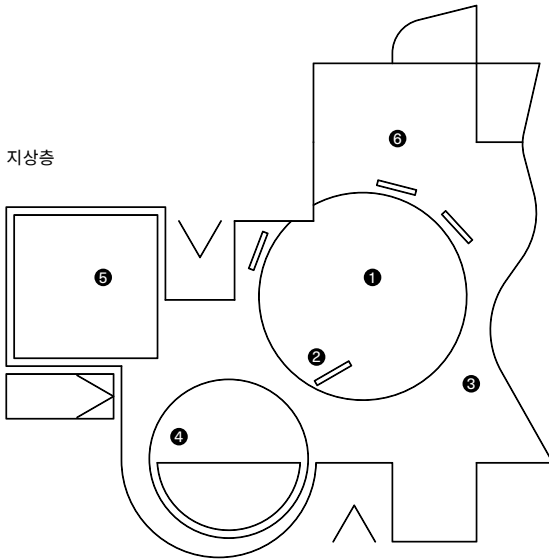
미래학교는 파빌리온이 탄생한 본래 의도를 받아들여 탄생의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냄과 동시에, 파빌리온 건축 특성의 모든 잠재력과 우수함을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통해 탐색하려 한다. 파빌리온의 개방성은 미래학교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파빌리온 실내를 벽 너머 자르디니 정원과 연결하고 회합 장소로서의 학교 캠퍼스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러한 비전은 미래학교의 공간디자이너 팀인 송률과 크리스티안 슈바이처로 구성된 수퍼 아키텍트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현되었다. 파빌리온 중앙의 벽돌로 된 사각 공간은 수제한지 벽으로 이루어진 전통 한옥 스타일로 탈바꿈한다. 조경 건축가 김아연이 제작한 갈대로 만든 원형 카펫은 회합의 상징적 공간을 만들며, 건물의 기존 배관을 이용해 설치한 작은 주방은 참가자들이 방문객에게 제주 옹기에 담은 차와 음료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까지 비엔날레 건축전에 이용된 적 없었던 옥상은 '큐레이터 연합' 기획의 일환으로 공용 공간이 된다. 전시, 워크숍 결과물 등은 '미래학교 약속문'과 나란히 A4 용지 형태로 물결 모양의 '프로세스 벽면'을 가로지르고, TV 스크린들은 미디어 전시를 위한 플랫폼이 된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들은 미래학교의 가상 공간인 온라인 플랫폼과 보완 관계에 있다. 불가분의 두 공간은 서로에게 콘텐츠와 콘텍스트를 제공한다.

미래학교가 다뤄야 할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 위기와 함께, 물리적 공간인 파빌리온이 미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 추구 역시 중요했다. 어떤 부분이든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자재 운송과 전시 종료 후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

이러한 포부는 한국의 전시추진단, 이곳을 지난 10년 이상 돌보았던 베니스 한국관 관리인들, 그리고 베니스 현지 시공사와의 협업으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식과 전문 기술을 효율적으로 주고받은 과정은 미래학교 프로그래밍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관 평면도



- ⑦
미래학교 / 큐레이터 연합 공동 공간
 ○
미래학교 버드 호텔 & 비 비&비
 이동용, 이성일

- ①
미래학교 모임
 ○
블랙메도우: 사라지는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
 김아연

- ②
미래학교 미디어 디스플레이

- ③
미래학교 프로세스 월

- 미래학교 약속문
 최태운
미래학교 선언문
 송률,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여기, 거기. 거기, 여기.
 크리스 로
건축 플레이숍
 이팩 투젤리, 멧 제임스, 크리스틴 아글로, 에이멘 H.오즈칸,
 마이자-리사 하르
DMZ, 경계를 걷다
 안상수, 권민호, 이선우
절묘한 시체 프로젝트
 마르코 브루노, 시모네 카레나
미래학교 여름학교: 트랜스보더 랩
 임동우, 트랜스보더 랩 팀, 트랜스보더 랩 학생들
글로벌 프리 유닛(GFU)
 로버트 멀, 제니아 아드주베이, 카트리나 비보, 칼 렌턴,
 토머스 랜들-페이지
공간 혁신: 공원과 시민적 자긍심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리웅
말하는 나무들
 마준혁, 말하는 나무들 팀

- ④
미래학교 부엌

- 미래학교 기후급식
 이해원, 서원태
미래학교 제주 옹기
 정미선

- ⑤
미래학교 한지방

- ⑥
미래학교 공용 작업 공간
 ○
미래학교 사운드
 장영규

미래학교 생성대화

다면적 접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미래학교의 생성대화는 프로그램 전반의 핵심으로, 미래학교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탐구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각의 대화 형태와 방향은 유연하며 참가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미래학교 안에서 '생성대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그룹이 열린 대화를 위해 모여 참가자와 관객이 동등하게 새로운 생각, 행동, 사유의 연쇄를 함께 생성하는 계획된 순간을 말한다.

생성대화는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도구, 즉 긍정적 행동을 위해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수단인 셈이다.

미래학교 생성대화는 서면역사보다 앞선 전통에 기반한다. 함께 모여 경청하고 각자의 생각과 관점을 교환하는 등의 단순한 행동은 구술, 수사적 토론, 스승-제자 식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인류의 지식을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에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에 흔한 평상은 땅 위로 높인 모듈식 단 형태의 가구로 공동체가 모이는 곳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학교 캠퍼스는 여러 생성대화들을 한국관 중앙에 펼쳐진 김아연 작가의 원형 카펫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시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어 갈 미래학교 온라인 역시 또 하나의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지난 생성대화 아카이브를 열어 인터넷 그리고 세계와 공유할 것이다.

미래학교 생성대화 시리즈

2021.05.15 오전 11시 (한국표준시), 오전 4시 (중앙유럽표준시)

F. #미래,현재,과거. #학교

미래학교 트랜스보더 랩 학생들, 이택광, 애니 페드렛, 제니퍼 리

2021.05.22 오전 10시 (한국표준시), 오전 3시 (중앙유럽표준시)

U. #배운것을잊다 #학생 #과정 #식사

안상수, 권민호, 데이비드 거스텐, 프리다 포베리, 이펙 투렐리

2021.05.29 오전 10시 (한국표준시), 오전 3시 (중앙유럽표준시)

T. #테크놀로지 #슬로우 #이노베이션 #아날로그

황지은, 김아연, 이소진, 데이비드 삭스, 조토니

2021.06.05 오후 5시 (한국표준시), 오전 10시 (중앙유럽표준시)

U. #우리 #함께 #차이

이아람, 크리스 로, 류혜민, 캘빈 추아, 베니스 운영팀

2021.06.12 오후 5시 (한국표준시), 오전 10시 (중앙유럽표준시)

R. #난민 #건축가 #디아스포라 #재생

이택광, 로버트 멀, 아나 베탕쿠르, 송률, 추영릉

2021.06.19 오전 10시 (한국표준시), 오전 3시 (중앙유럽표준시)

E. #환경 #교육 #시스템 #실험

배형민, 이해원, 황나현, 이안 벨더

2021.06.26 오후 4시 (한국표준시), 오전 9시 (중앙유럽표준시)

S. #학교 #소셜 #공간 #아카이브

마르코 브루노, 시모네 카레나, 루팔리 굽테, 프라사드 세티,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2021.07.03 오전 10시 (한국표준시), 오전 3시 (중앙유럽표준시)

C. #쿨 #시민 #연결 #협업

서동진, 김유빈, 송성희, 마준혁, 말하는 나무들 팀

2021.07.10 오전 10시 (한국표준시), 오전 3시 (중앙유럽표준시)

H. #여기 #지금 #위기 #불확실성

이지희, 이택광, 조민석, 안토니 폰테노

2021.07.17 오후 9시 (한국표준시), 오후 2시 (중앙유럽표준시)

O. 열린 생성 대화 1

Curators Collective

2021.09.04 오전 11시 (한국표준시), 오전 4시 (중앙유럽표준시)

O. 열린 생성 대화 2

임근혜, 이성원, 엄윤미, 아르코

2021.10.30 오후 7시 (한국표준시), 오후 12시 (중앙유럽표준시)

L. 마지막 기회와 새로운 시작

모든 미래학교 참여자

미래학교 온라인(www.futureschool.kr)에서 생성대화 페이지를 방문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래학교 온라인

다층적 콘텐츠 네트워크와 살아 있는 아카이브

‘미래학교 온라인’은 미래학교의 가상 캠퍼스이다.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적 실체인 그곳은 미래학교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독자적인 디지털 환경으로, 워크숍, 토론, 가상 회합 및 전시를 연다.

모든 미래학교 프로그램은 ‘강사’와 ‘학생’이 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또는 공동 게시판을 위한 공간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들은 서울, 베니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미래학교 캠퍼스들과 연결되는데, 이는 참가자들 사이의 대화, 의견 교환,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들을 갈무리하거나 요약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들어 낸다.

미래학교 온라인 사이트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쉬지 않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미래학교 내 모든 활동의 살아 있는 아카이브로서 방법론, 자료, 결과를 공개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공유하며, 교육에 대한 열린 접근의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진화하는 참여적 온라인 전시인 만큼, 관객은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베니스나 서울의 캠퍼스를 직접 찾은 방문객처럼 능동적인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미래학교 온라인의 디자인은 알고리즘 기반의 디자인 툴 구축에 중점을 둔 연구소 908A의 강이룬과 앤드류 르클레어가 맡았다. 기본 콘셉트는 ‘학교’란 목록, 문서 그리고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임을 바탕으로 둔다. 의미의 생성은 네트워크 안의 연결점, 즉 사람들 사이, 강의계획과 교과과정 사이, 교실들 사이, 읽기와 쓰기와 가르치기 사이, 발상들 사이의 연결점 안에서 이뤄진다.

오늘날 온라인 교육의 대부분은 지극히 다른 서드파티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한다. 미래학교 온라인이 마주한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견과 연결의 기회를 창출할지, 즉 콘텐츠의 관리 차원을 넘어 네트워크와 인터랙션을 어떻게 운영할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호스팅 된 다이어그램은 수업들 사이의 공통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미래학교 내의 광범위한 커리큘럼 속 리좀형 관계들을 장치하고 전시한다. 기획 제공되는 유연한 레이어, 모듈식 피드와 테이블을 통해, 일반 방문객부터 등록 학생, 프로그램 디렉터까지 학교의 서로 다른 측면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각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촉진한다.

플랫폼은 또한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로 기획된 인쇄출판물 제작을 용이하게 한다. 널리 쓰이는 웹브라우저들에 내장된 인쇄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디자인이 생성되어, 인쇄용 PDF 파일을 만들어 낸다.

미래학교 온라인 방문:
www.futureschool.kr

미래학교 한국관
제 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전시 프로그램 2021

글로벌 상상의 지도

아나 베탕쿠르, 칼-요한 베스텔룬드, 매슈 부처,
오리아나 엘리사베, 레오니다스 마틴, 다비드
오르테가 마르티네스, 마테우스 포자르, 토비아스
베스텔룬드, 단 예센, 하이디 스베닝센-카이타, 안재우,
한성필, 킬리언 도허티, 다비드 발데비

○
온라인
워크숍

세계 각지에 산재된 지역 프로젝트들의 지도를 연결하여
전 세계적 협업과 소통으로 나아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 지구적 생태 위기는 불균등한 개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조건, 이주와 이민처럼 전
지구적 시스템의 위기를 가리키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발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다단한
경제 · 정치 · 사회 · 환경적 영향력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한 도전과
기회를 다룰 전일성과 다원성을 아우르는 실험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대안적 전략과 실천 및
개방적 계획 모델 등을 살피며, 어떻게 전 지구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을 형성하는가를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탈성장, 전환, 커먼스, 재 지역화, 환경 정의와 같은 개념에
주목하여, 미래학교를 이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며
온라인 아카이브 및 대화형 지도 제작 플랫폼으로서
활용한다. 본 워크숍은 협업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성될
열린 소통의 공통 기반을 다지는 데 매진하여, 세계 곳곳의
지역 프로젝트들을 찾아내어 연결한 온라인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해방적 학교의 고고학

서동진, 안슈만 다스굽타, 요시코 시마다, 김한수

○
서울, 온라인
가상 강의, 생성대화

미래학교 자신의 “미래성”과 그 너머를 알려주는 비-서구
세계의 급진적 교육 모델을 살펴보다
<해방적 학교의 고고학>은 20세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민족해방과 반자본주의 투쟁의 시기 동안 전개된 비판적
교육 운동과 그것의 전개를 살펴본다. 이는 사회, 역사적
조건을 성찰하는 교육에서 벗어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참담한 모습을 되짚어 보도록 할 것이다. 비평가
서동진은 인도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해방적
교육'의 실험과 그 사례들을 안내하며, 세 번의 토론을 이끌
것이다. 일본의 급진적 예술학교, 인도의 보편적 문명을
향한 예술학교, 한국에서의 노동야학운동은 고고학적
유산이 아니라 중단된 미래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건축 플레이숍

이펙 투렐리, 맷 제임스, 크리스틴 아글로, 에이멘
H.오즈칸, 마이자-리사 하르, 주오판 첸, 오드리 부투스,
탐진 베르멘

○
몬트리올, 온라인
워크숍, 전시

어린이와 함께 기후 변화, 강제 이주, 건축 환경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를 계발하다

기후 변화와 강제 이주 같은 문제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환경 정의에 대한 교육은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 많은 건축가들은 인공적인 건축 환경 변화가 기후
변화의 간접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취약 인구
집단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완화시킬 전망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건축에 관한 질문을 종종 간과한다.

‘건축 플레이숍’은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워크숍이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아이들의 의식을
성장시키며 언젠가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길
실천의 씨앗을 심어준다.

수업은 건축 자재와 구체적 환경 영향, 지구
온난화와 도시화, 해수면 상승과 연안 거주지역의 변화
적응, 강제 이주와 인간 존엄을 지키는 수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협업의 아틀리에

컨스트럭트랩 — 알렉산더 뢰머, 조안느 푸젠 주최

○
베니스, 온라인
워크숍

다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의 배움과 생활을 실험하다
컨스트럭트랩은 며칠에 걸쳐 미래학교 베니스 캠퍼스에서
‘협업의 아틀리에’를 개최해 여과 없는 피드백, 전략적
기획 및 의견을 나누는 연례 공개 세션을 연다. 이들은
특히 건축계 내부 교육 전략에도 초점을 맞추어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진보적인 대안적 교육 접근법을 되돌아본다.
헌신적인 참가자들에 의해 건설적이고 유쾌한 열린 회합이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구축될 예정이다.

불가피성을 넘어: 서울과 제노아

김소영, 크리스티아노 레프라티

○
베니스, 온라인
워크숍

지구 건너편 디자인 학생들의 현장 발견을 모으는 협동 스튜디오 작업

서울과 제노아 같은 도시들은 부상하는 공유경제와 공동소비의 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주로 인해 쫓겨나는 공동체들,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낳은 부당한 혁신에 대한 치열한 요구 같은 불가피하고 까다로운 동시대 도시화의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제노아대학교 학생들은 함께 서울과 제노아라는 각기 다른 장소의 서로 다른 도시 문화를 탐색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네트워크의 창출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은 공동 디자인 스튜디오와 워크숍을 통해 우리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건축과 도시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이러한 기회와 도전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관해 문화를 횡단하는 통찰을 공유할 것이다.

블랙메도우: 사라지는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

김아연

○
베니스, 온라인
설치

인류세의 시대 자연계의 상황을 직시하다

작가이자 조경 건축가인 김아연의 <블랙메도우>는 생명이 사라진 자연을 상징한다. 지구상에는 갈대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로 빗자루를 만드는 문화가 오래 존재해왔다. 생태적인 교란 또는 파괴로 인해 빗자루를 만드는 지역 고유의 유산 역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초지를 재현하는 빗자루 카펫은 미래학교 베니스 캠퍼스의 중심부에 설치된다. 이 불모의 들판에서, 미래학교 참가자들은 우리 앞에, 그리고 지구 전체 앞에 놓인 삶과 죽음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도시 용어 소사전

루팔리 굽테, 프라사드 세티

○
온라인
워크숍

장소와 자아에 관한 동적인 어휘집을 구축하다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주로 목록과 축제 사이를 오간다. 이 프로그램은 그 두 가지 은유 사이에 도시를 살아가고 경험하는 훨씬 더 해방적인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르가온과 뭌바이라는 두 도시에 대한 '도시 용어 사전' 전시에서 출발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도시를 사유하는 개인적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용어 사전을 만들어가게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동적인 연구 과정은 장소와 자아를 다루는 방대한 현장 연구와 결합한다. 이렇게 새롭게 제작된 용어 사전들은 독학자를 위한 인터랙티브 교육 도구로 기능하여, 도시 형성의 무수한 차원들을 개방하는 과정이 된다.

쿨 시티

박경, 니콜라 카발리에리 드 파세, 알렉산더 발렌티노, 김선현, 임영환, 마틴 드브리엔트, 지아코모 파이엘, 뻬에트로 넌지안테, 김진형, 이현희, 한지현

○
서울, 베니스, 온라인
워크숍

고대의 지하 수자원을 재발견하다

'쿨 시티'는 이탈리아 나폴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간학제적 연구 프로젝트다. '쿨 시티'는 현재 쓰이지 않아 방치되었거나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하 수자원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주변 지역보다 최대 7도까지 기온이 높은 밀도 높은 도시 지역의 열섬 효과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쿨 시티'는 남아있는 (고대의) 수계 시스템을 복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다. 나폴리와 서울의 몇몇 후보지의 수자원을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탐험하고, 미래의 천연 자원이 될 수 있는 버려진 물의 경로와 원천을 추적해 건강한 공공/ 사유 공간을 창조하며 기후변화에 사회경제학적으로 도전한다. '쿨 시티'는 또한 도시 환경 속에서 수압 장치, 에어컨 시스템, 환경공학, 생물학, 도시 사회학, 고고학, 지질학 등에 있어서 혁신적인 물의 활용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미래학교 내의 '쿨 시티 랩'은 기후 보호와 새로운 도시 개입의 다중적 뉘앙스를 분석하는 여러 분야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앞서 언급한 비전에 관한 토론과 디자인을 촉진한다. 또한 냉각 용도로 물을 이용하는 고대의 시스템과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재고를 장려해, 카나트, 지하수로 및 유수지, 윈드 타워, 야크찰, 살사빌 등 자연적인 전통 방식을 그린 및 블루 시스템의 진화를 가져올 새로운 기술 및 기기와 결합하게 된다.

쿠치나 세미 아쿠아티카

카를로타 노벨라, 프란체스카 올리비, 리아넨 모건-해치, 안드레아스 랑

○
베니스, 온라인
퍼포먼스

산테라스모 섬에서 리즈 & 리버풀 운하까지, 음식에서 배움을 얻다

‘쿠치나 세미 아쿠아티카’는 각 지역에서 수집한 조리법들을 물과 육지의 공생적이고 역사적인 연관성이 깃든 두 지역의 음식 윤리와 경제를 논의하는 진입점으로 활용한다. 향토 조리법을 비평적 렌즈로 삼아, 베니스의 산테라스모 섬과 영국 북부의 리즈와 리버풀 운하 두 지역의 전통적 식량 시스템과 잠재적 수단 및 연대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1500년 이후로 산테라스모 섬은 베니스의 식량 공급원 역할을 했고, ‘베니스의 정원’이라는 뜻의 ‘오르토 디 베네치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수년 간 많은 변화를 겪어온 이 섬은 놀라운 회복과 배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 석호라는 자연환경의 생리에 도전하는 여러 프로젝트의 본고장이다.

한때 영국의 드높은 경제적 혁신과 기상을 상징했던 리즈와 리버풀 운하는 다양한 성격과 용도로 발전해 왔다. 이곳에는 도시 및 전원 지역에 사는 야생 생물의 독특한 기반, 지역 주민과 영국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레저 시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적지 등이 포함된다.

‘쿠치나 세미 아쿠아티카’는 공개 라이브 교실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요리한다는 단순한 방법을 활용하여, 특징적인 두 지역을 비교하며 두 장소의 미래에 관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집단적 상상을 펼친다. ‘쿠치나 세미 아쿠아티카’의 조리법은 협동과 협업의 실습이 될 가상 퍼포먼스를 통해 여러 곳의 주방에서 동시에 마련될 예정이다. ‘쿠치나 세미 아쿠아티카’의 ‘교실’은 온라인 매체를 거리에 대한 고찰로써, 또 온라인상의 집단행동과 배움의 기제로써 활용할 것이다.

미래학교 온라인 디자인

강이룬, 앤드류 르클레어

○
온라인
전시

미래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카이빙하다

‘미래학교 온라인’은 ‘미래학교’의 웹사이트이자 플랫폼으로, 2021년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학교에서 생성된 활동과 대화를 담아낸다. ‘미래학교 온라인’은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열리는 물리적 전시에 대한 온라인 상응물로, 전시 참가자들의 ‘의뢰작’을 텍스트와 이미지의 형태로 선보인다. 이는 미래학교에 의해 제안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수업을 목록화한 온라인 학교를 말한다. 기본적인 수업 정보 외에도 미래학교 온라인의 ‘강사’와 ‘학생’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공간인 ‘공용 게시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학교 온라인은 학교의 공식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이트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자 요청에 의해 자동 인쇄하는 기능도 있으며, 이는 향후 출판물 생성과 아카이빙 가능성을 연다.

DMZ, 경계를 걷다

파티, 안상수, 권민호, 이선우

○
DMZ, 온라인
워크숍

자연과 긴장이 공존하는 DMZ를 해석하다

DMZ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날선 대결지대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완충지대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DMZ는 인간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으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DMZ는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자연의 보고인 것이다. PaTI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는 학생들과 함께 DMZ로 여행을 떠난다. 인간의 개입 없이 펼쳐진 자연과 정치적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DMZ의 공간에 대해 PaTI 스튜디오는 그들이 감각한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시각화한다.

절묘한 시체 프로젝트

마르코 브루노, 시모네 카레나

○
서울, 도하, 베니스, 온라인
워크숍, 전시

대륙에 걸쳐 건축적 비전을 잇다

도하를 거쳐 서울과 베니스를 잇는 ‘절묘한 시체 프로젝트’는 두 대학에 진학 중인 13개국 학생들 간의 협업이다. 고대 로마의 수로가 그랬듯이, 수많은 이의 손으로 태어난 작업이 한데 묶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

파사드는 연속된 패턴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절묘한 시체 그리기 게임’에서처럼, 각 참가자는 이전 사람의 작업을 이어 작업을 진행한다. 이탈리아의 급진적 건축 집단인 슈퍼스튜디오의 실험적 유산에 경의를 표하는 최종 드로잉은 두루마리의 형태로 베니스에서 전시된다.

미래학교 약속문

최태윤

○
서울, 온라인
워크숍, 전시

참여와 배움의 공동 기준을 만든다

‘미래학교 약속문’은 미래학교 참가자 모두 미래학교 전 플랫폼에 걸쳐 매일같이 이용하는 참여의 지침 및 책임의 내용을 제공한다. 이는 베니스 현장과 온라인 전시 모두를 아우르며 미래학교 자체를 이루는 기본 구조 중 하나이다.

예술가, 작가이자 기획자인 최태윤은 2020년 미래학교 여름학교: 트랜스보다 랩 학생들 및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미래학교 약속문’을 만들었다. 이 2020년 약속문 워크숍은 다수의 대안적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었다. 여기에는 페미니스트 해커스페이스와 베를린 행동규범을 비롯해, BUFU, 프레스 프레스 볼티모어 등을 포함한 BIPOC 커뮤니티 그룹, 그리고 한국의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언메이크 랩,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불확실한 학교 등이 있다. ‘미래학교 약속문’의 목표는 학교의 중심을 학생들의 비전과 희망에 두는 것이다.

미래학교 제주 옹기

정미선

○
베니스
설치

어머니를 닮은 제주 옹기

베니스 미래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차와 음료는 도예가이자 조각가인 정미선이 만든 컵에 담긴다. 그녀는 또한 한국관 옥상에 새를 위한 옥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옹기는 한국의 일상 생활 용품으로 김치를 발효하고 간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했던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미선이 미래학교를 위해 만든 컵은 제주도의 독특한 도자기 형태와 조각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만드는 과정은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화산섬에서 구할 수 있는 현무암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가마를 통해 제작하는데, 최고 온도에 이르기까지 사흘이 걸린다. 각각의 결과물이 그 자체로 독특하고 고유하다. 이는 도자기를 굽는 과정 중 발생하는 자연발화와 점토 면의 다양성 때문이다.

미래학교 기후를 위한 런치케어

이혜원

○
서울, 베니스
퍼포먼스, 전시

학교 급식 행동주의

'기후를 위한 런치케어'는 베니스 현지 미래학교 참가자와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학교 급식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채식 요리들을 제공하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병원, 군대, 어린이집, 요양원 등의 친환경급식을 실천적인 대안으로 제안한다. 간단한 식사이자 그 이상으로서 '기후급식'은 1996년 한 학부모에서 시작된 한국의 친환경 학교급식운동을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연대하며 실제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미래학교 비 비&비

이동용

○
베니스
설치

생존을 위한 보호소를 만든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야생벌들의 수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벌들의 생존을 위해 디자인된 <비 비&비>는 2~8mm의 구멍들을 낸 목재 기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한국관의 옥상 및 외부 공간에 설치된다. 지킬 꼴이 없어 공격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고독성 야생벌들에게 이 기둥은 쉼터가 된다.

미래학교 버드 호텔

이동용, 이성일

○
베니스
설치

가정적인 것의 용도를 재설정하다

'미래학교 버드 호텔'은 한국관 옥상에 새들이 먹고 마시고 동지를 틀 수 있는 설치 작업이다. '버드 호텔'은 체, 국자, 바구니, 주전자 등 중고 주방용품으로 만들어진 설치물로서 새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미래학교 런치케어'의 일환으로 주방도구를 자연환경으로 가지고 나가, 생태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재사용화하고 결합하는 작품이다.

미래학교 점심시간

서원태

○
베니스
전시

'런치케어' 현장을 담다

'미래학교 기후를 위한 런치케어'에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는 '미래학교 점심시간'은, 급식을 먹는 한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급식의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미래학교 식량 채집

송호준, 리오 제임스 스미스

○
베니스, 완도
퍼포먼스, 전시

땅과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삶을 시도하다
'미래학교 식량 채집'은 일주일간 베니스 및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식량 채집 및 지속가능성 현장에 대한 연구이다. 이탈리아와 한국 팀들은 게, 생선, 야생 식물 등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베니스 오징어와 마주칠 기회를 희망하거나, 동아시아에서는 흔한 식재료지만 베니스에서는 바다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유해 해조류인 켈프(해초의 일종)를 탐사한다. 이들의 탐사 내용과 그 결과는 미래학교 안에서 기록, 전시, 보존될 것이다.

미래학교 운동

안은미

○
서울, 베니스
퍼포먼스, 전시

마음과 정신의 관계를 일깨우는 매일의 운동
1960년대 이후 매일 아침, 사무실, 학교, 기관 그리고 심지어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역에 걸쳐 시민들은 규정된 방식으로 일일운동을 해왔다. 비록 이러한 '국민체조'가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거나 더 이상 한 때 유행했던 것처럼 행해지지 않지만, 엄격하게 규제된 체조는 한국 문화의 일상에 깊게 새겨졌다.

이러한 전통 속에 저명한 컨템퍼러리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안은미가 미래학교를 위한 특별한 '운동' 시퀀스를 만든다. '미래학교 운동'은 방문객과 참가자 모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현을 수행하기에 좋은 움직임이다.

미래학교 공간디자인

송률,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
베니스, 서울
설치, 생성대화

한국관, 고찰이자 선언이 되다
SUPA Architects의 송률과 크리스티안 슈바이처는 프란츠 카프카의 아포리즘 '너 자신이 숙제이다. 그 어디에도 학생은 없다.'를 통해 자신들이 설계한 한국관의 미래학교 공간 디자인의 전개와 건축 디자인 전반을 표현한다.

드로잉, 콜라주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작업에 대한 영감, 디자인 전략 그리고 일상을 보든 디자인의 기반으로 삼는 그들의 디자인 방법론을 드러낸다. 모든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다. '미래학교 공간디자인'은 그들의 '네이키드 플랜' 시리즈 영상 전시와 더불어 한국관이 하나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써의 디자인'이라는 선언으로써 사용되기를 실험한다.

미래학교 사운드

장영규

○
베니스, 온라인
사운드 설치, 퍼포먼스

소리로 학교를 고찰하다

학교의 시간과 공간을 표현, 경험하기 위한 사운드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미래학교 사운드는 장소의 감각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운드 개념을 탐험하고자 한다. 영화음악 작곡가로 유명하지만 현대적, 전통적 스타일을 혼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쌍쌍'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실험 음악가 장영규는 학교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청각 환경에서 영감을 받았다.

미래학교 사운드는 시간의 흐름이나 장벽에 상관없이 기관의 공간적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사운드로부터 개발되었다. 미래학교 사운드는 또한 학교의 교가로서 기능한다.

미래학교 사운드는 음악이 여러 부분으로 분리되는 과정 이후 여러 세션을 통해 음악 만드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인데, 그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사운드는 학교안에서의 개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질문을 던진다.

미래학교 여름학교: 트랜스보더 랩

임동우,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송률, 라파엘 루나, 캘빈 추아, 제라드 라인머스, 앤드류 벤자민, 조경진, 애니 페드렛, 서예례, 이상엽, 전진홍, 최윤희, 김동세, 박동민, 이창주, 김태동, 전해리, 서현석, 라오미, 이해반, 제이슨 힐게포트, 샤오수안 루, 피터 하스델, 조슈아 볼코버, 박성태, 황두진, 김정윤, 김광수, 황호빈, 루카스 파워, 피터 리, 머브 베디르

○
서울, 온라인
워크숍, 세미나, 강의, 생성대화

건축에 있어 경계의 본질과 기능을 질문하다

경계는 두 개의 정치적 또는 지리적 지역을 구분하는 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는 수많은 경계를 내포한다. 하지만 경계를 '선'이 아니라 '영역'으로, 즉 서로 나뉜 지리-정치적 행위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지닌 환경을 산출하는 영역으로 다뤄볼 수도 있다. '트랜스보더 랩'은 2020년 미래학교 여름학교가 선정한 주제로, 경계 조건들의 이론과 실재에 초점을 맞춘다. 경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해온 건축가, 예술가, 학자들이 그와 관련한 자신만의 논제를 전개하려는 국내외 건축학도들과 함께 일련의 대화를 나누되, 그에 국한하지 않는 경계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미래학교 여름학교에서 접근했던 '건축'은 물리적 구조물의 설계에 주력하는 영역이 아닌, 사람과 기술에서부터 철학, 자연, 지식 그 자체에 이르는 사회의 전 측면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래학교 여름학교는 탈중심화된 배움의 연결망을 향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인본적 접근을 추구한다.

강지영, 배건우, 윤희원, 임선정, 장세정, 장현수, 조은형, 한윤정, 홍익한

방과후: 미래학교 여름학교 기록도서

본 책은 2020년 '베니스비엔날레 미래학교 여름학교 트랜스보더 랩'의 전반에 대한 기록도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4명의 학생 중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이를 기록하고 되돌아보고자 했던 9명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던 렉처, 워크숍의 간략한 소개 및 질의응답, 학생들의 작업 등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참여 학생들과 아카이빙 팀의 미래학교 여름학교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이 수록되어 있다.

미래학교 여름학교: 트랜스보더 랩 프로그램

강의, 세미나, 내부 평가, 학생 발표: 경계도시 그리기
캠빈 추아

세미나: 중국을 둘러싼 국경지역의 변화
이창주

세미나: DMZ의 상상된 풍경과 '자연'의 신화
서예례

세미나: 메콩강 유역을 위한 전략적 계획
루 시아오수안

강의: 초월하는 경계들: 인식에 대한 잠정적 존재론
애니 패드렛

세미나: 변경의 생태지리학
이상엽

세미나: 접경지역 철원에서의 작업 및 기타 지역작업
김광수

워크숍: 무지개 새장 위의 철새
이해반

공개 강의: 보더스/보더리스
박성태

강의: 트랜스보더 랩
프라우드

워크숍: 유동적 도시화
제이슨 힐계포트, 머브 베디르

워크숍: 지반 위의 진실 인식하기
루카스 파워

강의: 플레이어, 게임 디자이너, 트랜스보더 건축가
피터 리

워크숍: 불가능을 상상하기: 증명으로서의 DMZ
김동세

세미나: 보더 인 모션
바래, 전진홍, 최윤희

공개 강의: 영역으로서의 경계
오피스박김

세미나: DMZ 관찰 프로젝트: 한계의 땅을 응시하기
조경진

워크숍: 상상의 정원에 진짜 두꺼비들을: 변개된 북한
설화 <오누이와 나무꾼>
라오미

세미나, 워크숍: 초월하는 경계들: 인식에 대한
잠정적 존재론
애니 패드렛

생성대화 1: 약속문
최태윤

세미나: DMZ 만들고 파괴하기: 역사와 이론
박동민

워크숍: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는 것
전해리

세미나: 국가 만들기
서현석

공유 시간: 보더 인 모션
바래, 전진홍, 최윤희

공개 강의: 제3의 길
황두진

세미나
조슈아 볼초버

세미나: 경계 생태학과 의식의 상태
피터 하스델

세미나: 경계 도시
김태동

세미나: 미래/경계: 공존과 DMZ
제라드 라인무스, 앤드류 벤자민

세미나: 무엇이 누군가를 할 말 없게 만드는가?
황호빈

생성대화 2: 다음 미래학교 여름학교

미래학교 가상 투어

송예환

○
온라인
전시

가상 공간 속 미래학교 건설과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사이의 연결 방법에 대한 개발

가상 공간 속에 학교를 건설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표면적 지리 정보의 기록 혹은 실제 공간의 재현에만 중점을 두어왔던 기존의 온라인 가상건축물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기능을 위한 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가상 공간 속 미래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의 관련성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정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뀐다. 가상 건축물은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른 정보를 보여주며 이때의 정보는 구글 시트를 통해 끊임없이 업데이트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위 걸어다니는 두 손가락의 제스처를 통해 가상 학교를 걸어다닐 수 있다.

학교의 미래학

이택광

○
서울, 온라인
생성대화

민족국가의 건축적 설계에서 학교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이번 생성의 대화 시리즈는 미래 학교교육의 대안적 형태로 나아가, 현대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한다. 이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계몽된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주의자가 되어 국경의 한계를 탈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대의 교육 체계는 결국 민족국가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한편, 세계화된 삶과 존재론적 이주 상태라 할 현 상황은 그러한 계몽주의적 이상의 불안한 양상을 드러냈다. 그중 하나가 도처에 존재하는 난민일 것이다. 건축은 단순히 건설의 방법론이 아니라, 인간 욕망을 기동화하는 무엇이다. 여기에서 관건은 일련의 질문을 던지는 데 있으니, 어쩌서 세계주의자 되기라는 칸트적 기획이 유효하지 못했는지, 왜 사람들은 국가·'사이'('inter'-national)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쉽사리 난민의 지위로 전락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번 시리즈는 학계와 창의 분야의 인물들을 학교의 '미래학'에 관한 토론에 초대한다. 논의의 비전은 비건축의 영역을 실험적이고 상상적으로 포용하는 데서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사유의 리즘적 운동을 촉진한다. 이러한 미래의 학교들은 새로운 국제주의를 또 집없음의 역설로부터의 탈출을 꿈꾼다. 학교의 미래학은 이름 붙인 바로 그 미래의 도래를 나타내며, 그렇기에 우리가 현재의 교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학교'가 아닌 '학교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곧 탈주선상에서 움직이는 과정이다. 이번 시리즈의 대화 주제와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택광, 조프 피터 노먼 브래들리, 마노이 N.Y., 토시아
우에노, 데이비드 R. 콜, 에미네 고르쿨, 히토미 코야마,
경희대 글로벌인문기술연구소

포스트미디어와 미래 교육

팬데믹의 시대, 우리 '인문학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과 학교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포스트미디어와 미래 교육에 주안점을 둘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대의 교육 체계를 잠식하고 재구성하는 기술과 급진적 변화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팬데믹의 시대를 맞아 기술은 전통적인 교실을 대체하는 시뮬라크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환과 그 정치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다.

이택광, 신인섭, 김주영, 이진형, 양경심, 피터 애디,
지아다 페테렐레,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모빌리티, 인문학, 교육

하나의 상징으로서 "멕시코-미국 장벽"을 목도하며, (초) 국가적 경계를 상징한 (후기)현대 건축은 이주 난민들을 정당하게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공존 혹은 회합의 혁신적인 방법을 상상하고 고안하고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할 터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제를 시작하는 방편으로, 오늘날 인간의 상상과 문화적 산물 속의 "탈구된" 시간성-공간성을 논의하여, 경계에서 이동성으로 자리 옮길 할 것이다. 토론 후에는 실천 중 하나로서 대중의 참여, 교육을 담은 짙은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알레산드로 루소, 클라우디아 포차나

미래의 시적 학교

본 프로젝트에서는 알레산드로 루소가 쓴 <파를로무르스>를 낭독하는 무대를 구축할 것이다. 클라우디아 포차나와 알레산드로 루소의 공동연출로 극단 이머넌츠가 이탈리아어로 공연하며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극단은 포차나와 루소가 쓴 <아니타 혹은 비존재자들의 학교> 역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해 왔다.

종합 교육

주세페 스타포네, 마리아 크리스팔 (마리아 크리스티나 팔롬비에리)

○ 베니스
퍼포먼스, 워크숍

미학적 교육체계를 향한 경험 중심 지능 발달 프로젝트
'종합 교육'은 가르침의 진리를 고찰한다. 이곳에서 배움의 방법은 미학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론적 지식에 닿는 특별한 경로가 된다. 이는 개인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체계에 관해 '교육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원적 교수법이다. 주세페 스타포네는 일상생활에 이러한 접근법을 발전시켜왔다. 그의 접근법은 기존의 규율을 회피함으로써, 타인과 세계의 직접 접촉과 경험에 우위를 둔다.

작가 마리아 크리스팔과 함께 스타포네는 미래학교에서 '아베세다리아'를 만드는 워크숍 시리즈를 주최한다.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접해왔을 '아베세다리아'란, 단어와 그림으로 알파벳을 격자무늬로 푸는 것을 말한다. 미래학교 베니스 캠퍼스 방문객들 모두 '이상적인 집'에 대한 새로운 '아베세다리오'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 각 참가자는 선택한 첫 글자 하나에 자기 자신의 그림이나 콘셉트를 더하게 되고, 이 과정은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진화하는 아카이브를 형성한다.

글로벌 프리 유닛(GFU)

로버트 멀, 제니아 아드주베이, 카트리나 비보, 칼 렌턴, 토머스 랜들-페이지

○ 베니스, 온라인
워크숍

미래학교에 공유되는 전 세계 라이브 프로젝트 '교실'
'전 지구', '자유'라는 용어의 비판적 이해에 중심을 둔 글로벌 프리 유닛은 21세기 건축 교육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한다. 적극적인 시민이자 신진 실무가로서, GFU의 학생들은 대학 교육의 전형을 따르는 대신 라이브 프로젝트인 '교실들'을 찾아간다. '교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난민 수용소에서 버려진 도심지, 감옥, 비무장지대, 이주 센터, 인구 격감의 농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 바탕을 둔다.

GFU의 핵심 의도는 가치 개념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 구조는 경쟁, 개인주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며, 사회 역시 이를 반영하게 된다. GFU는 학생 자신의 원칙과 삶의 경험에 중점을 두어 가치의 재편을 중재하고 있다.

GFU 그림자와 빛: 남아메리카 이주 위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그림자와 빛’ 연구 프로젝트는 유럽, 영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미국과 캐나다의 지원을 받은 22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팀에 의해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와 러시아, 영국에서의 사회적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건축가들이었다.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베네수엘라 이주 위기에 있어서 시민사회, 경제적이고 사회적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지식에 기반한다.

이들의 목표는 지정학적인 것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로 진행되는 인간의 이동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는 디지털과 물리적 기반시설 그리고 공간 개입을 위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함이다. GFU: 그림자와 빛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과 생활 경제의 그늘, 비공식적인 가치 체계에 빛을 비추고자 한다. 이들은 2GIS 데이터와 직접들은 이야기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그리고 대유행 이전에 연구자들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정치적 경계, 지리적 환경 및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공간적으로 정보를 매핑했다. 연구는 세 가지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이의 국경, 전형적인 이주 여행, 그리고 도착 도시 예(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인 바랑키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오로케이션(사용자위치정보탐색) 데이터를 환경 조건에 매핑함으로써 시각화되고, 이를 통해 제안된 솔루션은 이들 사이의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021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미래학교>를 통해 공유되는 이러한 연구는, 그러한 위기를 크고 작은 복잡성 사이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지역적이고 초국가적 기구인 NGO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로버트 멀, 카트리나 비보, 마크 피어스, 샤린 엘나스치,
아말리아 카토포디스, 상그람 시르케, 가이아 크로첼라,
안티고니 고우타콜리

GFU 레스보스 교실: 난민 인구가 직면한 난제들을 다루다
2016년 이후 글로벌 프리 유닛은 NGO '레스보스 연대'의 초청과 '이주 디자이너 사무소'의 도움으로, GFU가 '픽파 열린 난민 캠프'와 '모리아 캠프' 두 곳과의 협업을 진행해 왔다. 픽파 캠프에서는 의료, 심리, 가족 등의 특수한 요구를 지닌 난민들을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희망 프로젝트'나 '베테 데이스 포 모리아' 등 레스보스 내 다른 캠프에서 위탁된 이들이다. 모든 맥락에서, GFU는 실항민들의 정체성을 기리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개입의 기반으로 사용한다. GFU는 또한 실시간 프로젝트 강의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추가 교육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FU는 2020년 픽파캠프가 폐쇄되고 모리아캠프가 전소된 데 이어 레스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

로버트 멀, 칼 렌턴, 클레어 세퍼드, 몰리 헤이워드,
앤드류 디킨슨, 크레이그 로, 커스틴 반스, 팀 레이, 벤
칼렌더, 앤디 다이, 조너선 리슬리, 웨더비 소년원의
15~18세 수감자

GFU 웨더비 교실: 청소년 수감자에게 건축을 가르치다
Seeds 교육 프로그램은 영국 웨스트요크셔주 웨더비의
여왕 폐하 교도소/젊은 범죄자 협회에 소재한 GFU
교실이다.

우리는 교육이 삶을 바꾼다고 믿는다. 개인의 배경이나 삶의 선택과 상관없이, 교육은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Seeds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제공자, 대학 및 기타 디자이너, 제조업체 및 크리에이티브와 협력하여 예술, 건축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Seeds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상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술적 과정은 자발성, 독창성,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려하면서 학습자의 창조적, 평가적, 협력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유연한 학습 접근 방식을 통해 강의실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예술성을 충족하도록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강의실의 결과물은 베니스와 미래학교 온라인에서의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교육이 사회 이동의 원동력이라면, 그것은 또한 죄수 재활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샬리 코츠 경

로버트 멀, 켈리 스콧, 앤 오록, 돌프 안 헨드릭 테
린텔로, 하니프 모하메드 카라, H. 멜템 Ö. 귀렐,
아이셀린 고제 일디즈 오구잘프, 아말리아 카타포디스,
상그람 시르케, 안티고니 고우타콜리

GFU 이즈미르 교실: 터키에 갇힌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다

이즈미르 교실은 EU-터키 난민 합의와 그리스행 난민 루트
폐쇄로 터키에 갇힌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응답해
지원을 제공한다. GFU 학생들의 작업에는 두 가지 배경
맥락이 있다. 이즈미르 도심의 바스마네 지구와 이즈미르
외곽의 수많은 농장 캠프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난민들은
이민 노동력으로서 개인 소유의 농장들에서 일한다.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난민들은 경악할 환경에서 생활하며 개인
지주들의 착취를 받고 있다.

난민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아예 불가능하며, 때로는 적개심과 폭력까지
마주한다. GFU 이즈미르는 주거, 위생, 인프라, 보건,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신설 자선단체인 '트라이브 터키'와 손잡고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 거기. 거기, 여기.

크리스 로

○
베니스, 서울
설치

문지방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2세대 한국계 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전직 건축가인
크리스 로의 작업과 예술적 탐구는 종종 '회색의 연구'라는
평을 받았다. 그것은 두 문화의 중간 어디쯤 자리한 것이거나,
국제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아니면 점잖게 말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무엇이다. 이 세션에서 크리스 로는
한국관의 프로세스 월을 실시간 설치와 그래픽으로 점유하여
존재와 장소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작업은 최근에 진행한
시간과 공간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지역적인 동시에
비지역적인 문화적 조우라는 특정한 렌즈를 통해 이뤄진다.

상상된 디아스포라

류혜민, 강영민, 반재하, 오민욱, 조기현, 신현준, 이진혜, 이택광

○
서울, 온라인
생성대화

이주와 디아스포라를 함께 사유하고, 감각해보자
'상상된 디아스포라(Imagined diaspora)'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동아시아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 그 중에서도 중국조선족(중국 동포)과 이들의 밀집 거주지역인 서울 대림동을 주목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는 수치다. 네 명의 참여 작가 강영민, 반재하, 오민욱, 조기현은 각각 동아시아의 초국적 이주 역사와 양태를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생성 대화와 미래학교 온라인에서 이미지, 에세이로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질문과 대화로 확장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의제는 현실과 직면한 차별의 문제이기도, 현대사가 쌓아낸 풍경이기도 하며, 미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상상된 디아스포라'에서는 이주민, 디아스포라에 대한 담론을 신현준, 이택광, 이진혜의 글을 통해 살펴본다. 신현준의 글은 오늘날 흩어진 장소에 따라 중국조선족, 고려인, 한인으로 다른 이름을 갖게된 이들의 이주 과정을 되짚는다. '디아스포라'로 환원하기에 코리안들의 이동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켜있다. 그 경로를 추적하는 일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은연중에 포함된 이주민에 대한 위계와 차별적 시선을 무화시키는 작업이다. 이택광은 세계 질서 속에서 난민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찾는다. 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된 국민국가는 국적을 인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외부의 존재들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와 국제적 협력의 증가는 국민국가 사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난민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진혜의 글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주민들이 거쳐야 하는 수많은 절차 그리고 법의 차별적 요소를 드러낸다. 국내의 여러 법률조차 이주민을 규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고 지난한 심사는 계속된다. 난민이 되지 않으며 이주하는 일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럽고 척박한 일로 경험된다.

인터-아시아 팝스 나이트

김태윤, 류혜민, 미미, 오대리, 박다함, 모스피란

○
서울
퍼포먼스

음악으로 아시아의 상(象)을 맞추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지역 음악도, 음악 장르도 아니다. 음악이 어떻게 경계를 넘고, 원래와 다른 의미가 생성되며, 문화에 스며들어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내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인터-아시아 팝스 나이트는 그러한 음악을 같이 기대할 사람들을 소망한다. 인터-아시아 팝스 나이트는 서울 음악 씬에 자리 잡은 아시아 음악에 대한 관심과 중국조선족(중국동포) 등 이주민 밀집지역인 대림동이 배경이 되었던 2019년 ‘대림동엔 양꼬치 먹으러 가는 줄만 알았다’ DJ 파티에서 이어져 온다. 이 오프닝 파티의 DJ들은 음악이 아시아 사이사이를 이동하고 연결하는 경로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할 것이다. 아시아란 정확히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 ‘팝’에 어울리는 음악은 무엇인가? 혼동스러운 질문을 마주했을 때 감각해야할 것은 단순히 선율과 언어가 아니다. 신체를 관통하는 음악과 정동을 굽어모아 아시아 음악의 상(象)을 맞추어 보자.

교차적 재현, 흠뻑려진 (휴)전선, 대답하는 존재들

이아람, 추영롱

○
베를린, 온라인
워크숍, 생성대화

사회 속 정체성 재현과 경계짓기의 허구, 공존에 대해
질문하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비엔날레의 주제에 대한 이아람과 추영롱의 고민은 빠진 주어, 즉 ‘존재’에 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나”는 ‘누구와/무엇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형식으로 치환된 이 물음은 ‘나’라는 존재와 그 밖의 존재들, 그것들의 정체성과 그들 간의 관계성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을 도출해 낸다.

세 개의 세션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교차적 재현: 이주와 디아스포라—하이픈으로 연결된 사람들’에서 두 작가는 상호교차성 이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에이전시인 개인의 내적 정체성이 사회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재구성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흠뻑려진 (휴)전선: 통일 이후 통일 문제—범인은 이 안에 있다!’에서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바탕으로 집단 정체성이 그 태생부터 지니는 경계 짓기의 속성과 함께 경계 짓기의 허구성 또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그램 ‘대답하는 존재들: 관계망 속 정치적 주체—코로나 시대의 공존’에서는 비엔날레의 대주제인 ‘공존의 방법’을 현재의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 비추어 고민한다.

강원개발계획

캘빈 추아, 조선 익스체인지

○
온라인
생성대화

평화 구축 프로세스로서 북한 도(道) 지역과 교류하고 개발하다

기념비적인 수도 평양을 넘어, 북한의 도(道)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도시 및 정책 실험의 현장이었다.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해 도 지역 개발에 상당한 국가 자원을 투입해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원산갈마 반도 및 동해안 지역 도시들의 관광 기반시설 개발이 그 중심에 있었다.

강원 지역 개발을 바탕으로, 조선 익스체인지는 2013년 말부터 해당 지역의 경제 정책 및 도시 개발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강원개발계획'은 조선 익스체인지의 최근 프로젝트로, 강원 지역의 5개년 교류 및 개발 로드맵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캘빈 추아가 이끌고 알리샤 박과 하워드 푸가 함께 참여하며 스페셜 아나토미가 지도 제작을 지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강원 지역의 산업 개발과 기반 시설의 과제들을 추적한다. 연구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류 로드맵은 평화 구축의 프로세스로서 강원 지역 개발 및 국제적 협업 플랫폼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

학습 쇼케이스: 거꾸로 캠퍼스

이성원, 박수연, 금혜지

○
서울, 온라인
워크숍

실험고 학생들이 분기 학습 내용을 공유한다

'학습 쇼케이스: 거꾸로 캠퍼스'에서는 미래 교육 실험실(G-school)의 학생들이 최근 10주간 주제 기반의 교과 과정을 소화하며 얻은 학습 결과를 공유한다. G-school은 거꾸로 캠퍼스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의 대안 고교로, 동적인 실험 학습에 정통한 능숙하고 직관적인 교사진을 갖추고 있는 학교이며, 현실 문제와 맞서고 개인 연구를 요하는 팀 프로젝트들을 주요한 커리큘럼으로 삼는다. 매 학기 G-school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교과 내용과 융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발전시켜, 배움과 생활을 결합하며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폭넓은 문제들을 탐색한다. 학생마다 학습과 숙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포트폴리오를 학사 기간 내내 만들어가고, 이러한 학습 관점을 공개 발표하는 것으로 학기가 마무리된다.

식사

아츠 레터스 & 넘버스, 프리다 포베리

○
온라인
공연, 생성대화

지역과 상황을 가로질러 함께 식사를 나누다

‘식사’는 ‘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프리다 포베리의 지속되는 탐구이다. 미래학교의 맥락에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 이미 ‘삶’이란 ‘학교’에 진학중이라는 제안을 해본다. 음식을 먹는 행동 그 자체를 배움의 행위로 해석하는 ‘식사’로의 초대는 공간, 시간, 그리고 경험의 공유를 형성한다. 때로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어넘어 동석하는 참가자들은 자신과 상대를 모두 의식하며 한 술 한 술 뜨게 된다.

틈: 상상과 재현

아츠 레터스 & 넘버스, 장현배, 제니퍼 박

○
온라인
전시

여러 개의 시선으로 만드는 공동의 여지

이탈리아어 ‘논-피니토’는 ‘미완성’을 의미한다.

미완성의 여백은 그 작품을 관객 스스로 완성하는 자율성을 주는데, 예를 들면 비어있거나 새하얀 공간이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게끔 하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는 모두가 자기만의 시각, 가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럼 점에서 우리는 미래의 학교가 그러한 공간을 생성하고 아직 지어지지 않거나 마감되지 않은 공간과 마주하며 자율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기를 꿈꾼다. 이러한 생각은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미래학교의 일부로서 반복 재생되는 비디오 설치를 통해 탐구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이곳 사람입니다

황나현, 데이빗 유진 문,
N H D M Architecture Urbanism

○
베니스, 온라인
전시

작은 섬나라를 표현하다

당신은 이제 이곳 사람입니다/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 및 기타 기후 현상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과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입지 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불안정하고 유지보수에 직면한 섬나라들의 복잡한 지형학들을 다룬다. 환경 불평등, 식민지배와 노예의 역사, 세계열강 자원 및 영토 분쟁에 취약하게 노출된 상당수의 SIDS('군소도서개발국'을 뜻하는 U.N. 지정 명칭) 거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물리적 기반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인류세가 낳은 기후 난민의 수는 2050년까지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 친화성, 포스트/신자유주의 국가, 디아스포라, 그리고 영역 간 이동성 등이 비평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연구하며, '당신은 이제 이곳 사람입니다/작은 섬나라들'은, 인식론 기반의 구체적 징후들과 원주민들의 대리인들을 통해 그러한 섬나라 영역들의 다원적 현실과 관계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섬나라 출신 개인들과 예술가, 활동가, 학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들의 기고와 대화 시리즈는, 희생자들을 획일적으로 비추는 행위에 도전하며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복잡다단하게 얽힌 위기의 관점을 제공한다.

연속성과 단절이 가로지르는 지점을 조사하고 글로벌 군도를 넘어 각각의 섬들에 친근하게 접근함으로써,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공간들이 공유된 행정계로 상정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사회정치적, 인간적, 생태적 결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화를 불러일으키며, 프로젝트는 느리지만 지속하는 폭력에 대한 저항, 소거의 과정에 대한 저항, 토지 (그리고 해양), 사람, 그리고 소속감 사이의 관계 이동과 이에 대한 저항을 탐구한다.

열린 도시 디자인 학교

전재성, 켄트 맥키너ن 조지 먼들

○
온라인
워크숍

진정한 디자인 학교 네트워크를 향한 매뉴얼/선언

열린 도시 디자인 학교(OCDI)는 도시에 구현되고 '충전된' 지적/기술적/예술적 능력 그 자체를 캠퍼스로 삼는다. 각 참가자는 '요원'이 되어 심문자이자 기구의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맥락, 접근권, 도구, 편견, 그리고 의도를 교차하게 된다. OCDI 프로그램은 혼성적이고 비위계적인 일정을 구성하고 촉진하며 열린-혼성적-비위계의 연합을 위한 노출과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2021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기간 중, OCDI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에서의 요원, 어젠다, 그리고 투영된 원고 등을 복제하기 위한 선언문과 매뉴얼을 생성할 예정이다.

영원한 봄

이지희, 제니퍼 리, 파블로 카스트로, 피터 린치, 이택광,
주세페 스타포네

○
온라인
전시, 워크숍

메타-테크놀로지를 향한 모두의 노력을 담은 저장고
'영원한 봄'은 본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의뢰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설치된 작품으로, '한시적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기회의 유형과 그 실험적 잠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임시적인 본성 때문에 이런 한시적
프로젝트는 때로 영구성을 꾀하는 건축에는 허락되지 않는
영토에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활동 및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기반을 보여주었다.

'영원한 봄'을 비롯한 여러 한시적 프로젝트는
건축과 도시 간의 숨겨진 (혹은 금지된) 시너지를 드러내는
능력을 펼치기도 한다. 한시적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나
사회적 불평등 및 민주적 참여, 그리고 절실히 요구되는
시민적 의의를 전달하는 건축의 수사법 등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맞설 더욱 총체적으로 재통합된 건축의 잠재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미래학교 전시에 구현되는 '영원한 봄
2'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발언하는 가상 플랫폼의 형식을
취한다. 변증법적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영원한 봄 2'는
강연이나 수업, 또는 짝막한 워크숍을 하고 싶은 강연자와
교사들을 얼굴은 알 수 없지만 광범위한 청중과 잇는 강력한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적 도시성 재가동

루시 머스그레이브, 로버트 멀, 김아라,
찰리 쿠베, 샬롯 로드, 가이아 크로첼라, 루마
이프람, 몰리 저지, 리타 파이사오, 사투
스트릿필드, 톰 영

○
서울, 베니스, 런던
워크숍

청년들의 힘을 실어 기후위기 전략에 활력을
미래 기후 문제에 맞서는 변화의 행위 주체로 청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도시성
역시 젊은이들의 변화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퍼블리카가 실행연구에 나선다. 그들은 풀뿌리
이니셔티브의 규모를 키우고,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며, 기후
위기를 다룰 참여 및 해법 중심의 방식을 시정 지도층에게
선보일 기회를 찾는다.

런던의 중심가에서 워크숍이 열리는 동안
젊은이들은 필수 기술을 쌓고 기후 행동을 위한 교육을
경험한다. 런던 중심부에서, 이 프로그램은 시민적 도시성에
새 힘을 불어넣는 청년들의 힘과 잠재력에 관해 시정 지도층
그리고 건축 환경 부문 관리들과 함께 긴요한 대화를
시작한다.

세운닷스쿨

황지은

○

서울, 온라인

워크숍, 전시, 생생대화

교육으로서의 제조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늘 아래서 만들기를 통해 배우다

세운상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골목마다 형성된 작은 공장들을 통해 낡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뒤엉킨, 독특한 도심제조업 공간이다. 지난 10년 동안 진중된 재개발 논의는 이 지역의 잠재적 활성화를 보류시키는 결과를 야기했고, 최근 도시재생으로의 정책 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지역 주민의 희망 사이에 분열을 초래했다.

세운닷스쿨은 '만들을 통해 배우는' 도시 현장의 상황학습 플랫폼으로서 도심 제조업의 새로운 교육적 역할을 조망한다. 안 헤링턴과 론 올리버의 '진정한 교육환경'(2000)을 위한 교육적 디자인 프레임 원칙을 따르며, 세운닷스쿨은 구체화된 지식, 상황을 통한 배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실습에 중점을 둔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제조업 지역인 세운의 실천공동체는 진정한 혁신의 역할과 도심제조업이 실제로 현대 도시인의 삶에 끼치는 사회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세운의 여러 장인들에게 배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그들의 일터인 공장을 '학교'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이 모든 지식과 문화 중 무엇이 미래세대에게 가장 의미할지, 세운닷스쿨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둔 새로운 사회적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작품들을 베니스와 서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개한다.

세운닷스쿨: 청계시소

전유진, 송호준, 김성수, 정동구

○

서울, 온라인

워크숍, 설치

일반 시민의 관심을 사로잡는 인터랙티브 설치

을지로 일대 생산 자원과 기술을 체험하도록 기획된

청계시소는 2019년 12월 청계천 세운교 위에 설치되었다.

청계시소는 혼자서 타는 시소이다. 중력과 무게중심의 원리를 시소라는 익숙한 장치에 구현하여 기초과학 원리를 쉬운 작동을 통해 놀이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전유진, 송호준, 김성수 작가는 청계시소의 모든 제작 과정에 걸쳐 적용된 기계, 디자인, 제작의 기법 등을 교육의 콘텐츠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시, 소 (다큐멘터리, 65분, 2020)

정동구

○
온라인
영상 상영

시소 위에서 바라보는 지역 생태계의 위기와 전환

청계시소는 1인용시소로 청계천-을지로 일대 생산 자원과 제작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설치물이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 움직이던 무계추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하면 시소는 청계천 상공으로 떠오른다. 도심제조업의 중심인 청계천 세운교 위에서 세 명의 제작자가 제작기술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시민들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정동구 감독이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시소는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청계시소가 기획, 제작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우리 도시의 갈등과 이를 둘러싼 로컬 생산 생태계의 위기와 전환에 대해 이야기한다.

느린 재난 프로그램

조토니, 정혜윤, 최빛나, 이지윤, 최혜원, 주다운, 오주영,
김대천

○
서울, 온라인
워크숍, 전시, 생생대화

재난에 대한 천천한 접근

‘슬로 퓨처스 랩’은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들이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폭력의 관점을 통해 미래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하는 실험의 장이다.

슬로 퓨처스 랩은 미래학교를 통해 ‘느린 재난 프로그램’ 워크숍을 소개하는데, 이는 다학제적 팀들이 함께 모여 인류세적 재해에 대해 논의하며 현재의 순간이 미래에 어떤 재난을 가져올지 살펴본다.

재난을 통해 자연, 기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지식을 나누고 탐색함으로써, 참가자들은 구체화된 방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생기는 위기, 기회, 그리고 트라우마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로, 이러한 분석은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계층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미묘한 영향을 드러내는데 성공한다.

느릿한 신호

이안 벨더, 알렉스 찰머스, 아르노드 페론, 지시 한, 홍애린, 프란시스코 레이날도 모랄레스 발디비아, 알리사 비소카, 알렉스 타케

○
온라인
생성대화

각자의 방법론이 공유된 하나의 몸짓을 이룬다

‘느릿한 신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순수예술 학교 슈테데슬레에서 미술가 양혜규의 수업을 듣는 일군의 젊은 미술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들은 다양한 지역과 환경 출신으로, 가능성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등불로 삼을 방법론이나 기술을 탐구하며, 정보 확산의 대안적 양식을 공유한다.

텍스트, 사운드스케이프, 물건이자 그림자로서의 오브제 등을 활용한 상호 작업을 통해 ‘느릿한 신호’의 미술가들은 각자의 도구를 가져와 교환하며, 대학 교육에서 주로 규범화되는 전통적인 공간들을 넘어선다. ‘느릿한 신호’ 속 각자의 개인 영역에서 발전된 방법론은 정적을 헤쳐 나아가는 하나의 한 권의 몸짓으로 혼합된다.

제34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조민석, 안토니 폰테노

○
온라인
전시, 생성대화

위태로운 세계의 건축

전 지구적 팬데믹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사회, 경제, 생태계 위기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위기는 최근의 극심한 소득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허리케인이나 산불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21세기 초는 ‘취약함이 널리 퍼진 불안정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위기는 거대하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한편, 동시에 단호한 대응과 변화를 요구한다. 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주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손상된 지역을 직면하여 즉시 재고하고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극심한 변화에 맞설 때엔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건축은 불안정한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도구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제34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공모전은 긴급히 다뤄져야 하는 취약한 현상들, 위태로운 사회·생태계적 상황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정의하며, 디자인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확립하는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미래 건축가들의 희망적이고 대담한 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재를 상상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공간국제학생건축상은 1983년부터 참가자들의 건축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작품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국제전으로 확대 실시하여 명실공히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간 혁신: 공원과 시민적 자긍심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리움, 김용, 심훈용, 한상욱,
이보배, 현지호

○
베니스, 온라인,
전시, 생성대화

도시 녹지 공간의 혁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시공원 내에 생활 밀착형 시민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고의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공원이 소규모 도서관, 전시장, 쉼터, 공방, 정원지원센터등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

정성들여 계획된 공원내 공공건축은 그곳의 자연환경을 이루는 지형과 나무를 존중한 공원 맞춤형으로, 건물에서는 공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공원에서는 건물이 자연스럽게 숲의 배경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소개되는 4개의 공원과 4개의 작업을 통해, 어떻게 자연과 사람 중심의 소박한 장소가 미래 지향적인 혁신에 일조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란다.

말하는 나무들

마준혁, 류 안, 테드 김, 최선웅, 김균철, 류민주, 윤정현,
이현희, 조규형, 마티아 인셀비니, 마르첼로 카르피노,
루이지 사비오, 다비데 마세리니, 클라우디아 콘소니,
마르코 감바레, 라이언 레이필드, 하스브룩 밀러, 스텔라
이오아니도우

○
베니스, 서울, 온라인
전시, 설치, 생성대화

동일한 환경에 개입하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연결하다
디지털 네이티브 건축가 첫 세대로서, 지금 활동 중인 밀레니얼들은 더 이상 건축을 전해져온 지식으로 정의되는 분야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에서 본 건축은 오히려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건축은 주거 제공이라는 의무의 짐을 내려놓는 대신, 주변 세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재생산하고 질문하고 교환하고 해체하는 활동으로서 가동되고 있다. 실로 오픈소스 학습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분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은 새로운 비물리적인 로컬리티가 출현하고 있다.

‘말하는 나무들’ 프로젝트는 전 세계 젊은 건축 집단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나무를 주제로 독창적인 작업을 펼친다. 여러 팀이 나무라는 익숙한 공통의 주제 탐구에 나서, 각자의 작업에 드러난 유사성과 차이를 통해 인터넷 시대에 발달된 새로운 디지털 지리를 지도화하기 시작한다.

‘말하는 나무들’ 참여 팀인 Perennial Commons, (애플)노멀+, 스테프 디자인, 원애프터는 베니스의 한국관 외부 수목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고, 건축적 민속지학, 신화, 신탁, 베니스, 세계의 인접지 사례, 표면과 질감, 소재 연구, 서울, 현장 기지, 장치, 과학과 자연과 기술과 건축의 교차점 등의 연구를 다룬다.

베니스 운영팀: 라군 다이얼로그

김은정, 치아라 가르빈, 코린 마졸리, 다비데 자코메티, 야코보 다비드, 루카 필리, 마리아리사 폰타나보나

○
베니스, 온라인
공연, 생성대화

함께하는 식사를 통한 공감과 속고

‘라군 다이얼로그’는 다양한 주제를 두고 격식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대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성, 재이용, 포용, 미래 관점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진행되며 특히 이탈리아와 베니스의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나눈다. 한국관에 마련될 이 대화들은 음식을 매개로 전달된다. 음식은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문화에서 초석과도 같다. 음식은 한 끼의 식사일 뿐 아니라 도구로, 원활한 대화를 돕는 수단이자, 지난 한 해 길었던 락다운과 물리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방편이다.

지역 주민, 예술가, 활동가들이 한국관 안팎에 설치된 제17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을 배경으로 베니스라는 도시를 내부관점으로 바라본 이야기를 전한다.

너무 더우시군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송성희, 조윤

○
서울, 온라인
전시

점증하는 위기에 해법을 제공하다

세계 곳곳에서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점점 절실해지고 있는 지금, 가장 더운 지역 사람들이 냉방 기술의 혜택을 가장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거대한 아이러니다. ‘쿨루프’ 공법은 건물이 흡수하는 태양열을 최소화함으로써 에어컨을 쓸 금전적 여유가 없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패시브 냉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미래학교 전시는 ‘쿨루프’ 공법을 보급하기 위한 이들의 최전선을 탐색하고 현재 진행중인 노력의 과정을 담는다.

젊은건축가포럼 코리아

김재경, 이태현, 오상훈, 박정환, 김유빈, 이용주, 심영규

○
서울, 온라인
생성대화

불확실성의 시대 속 대응적인 변화의 기회를 찾다

2011년 12월에 결성된 젊은건축가포럼 코리아의 컨퍼런스 파티는 한국의 젊은 건축가, 건축관련 전문가, 예술인들이 격식 없이 사회와 공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발적인 참여의 장이다. 젊은건축가포럼 코리아는 2020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미래학교’를 위해 ‘변화로의 대응’이란 주제로 2회의 컨퍼런스 파티를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제안, 의견의 교류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생성대화로 이어간다.

참여자 정보

커미셔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감독
신혜원

사무국장
배남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안지윤, 최은지

공간 디자인
송률,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그래픽 디자인
크리스 로

미래학교 온라인 디자인 개발
강이룬, 앤드류 르클레어

한국관 매니저
김은정

웹사이트 디자인
송예환

편집장
아나 윈스턴

에디터
마야 웨스트, 아만다 먼프로, 정소연

영상 감독
정동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신경미

코디네이터
장세정, 김민수, 이승은

번역
이재희, 이현정

행정 코디네이터
이도원

국내 홍보
MAG 홍보 & 이미지

해외 홍보
피오나배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시 사진
진효숙

음향 컨설턴트
김지경, 박병철

기술 컨설턴트
박동희, 정재경

미디어 서포트
이진원, 이민, 기린그림

메인 후원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후원
두오모앤코, 알레시, 삼성

지원
복순도가, VTOUCH,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간후원
아르코 아트 센터, 인사동 코트 랩

운송
티엔엘 다산아트

Special Thanks to
임여진, 엘리스 킴, 아이린 램, 이경희, 이성민

Thanks to
배소현, 조혜영, 최혜주, 한누리, 이정민, 이유진, 장혜진, 장가은, 전해인, 정성은, 노해나, 오은미, 오성연, 유화란, 김보라

약력

A

피터 애디
영국 풀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제니아 아드주베이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
영국 런던, 이탈리아 리구리아에서 활동

안은미
대한민국 영주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안지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류 안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안상수
대한민국 충주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크리스틴 아글로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B

반재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크리스틴 반즈
영국 브래드포드 출생
영국 노스요크셔에서 활동

카트리나 비보어
영국 런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앤드류 벤자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생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활동

탐진 베르멘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아나 베탱쿠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출생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조슈아 볼코버
영국 맨체스터 출생
홍콩에서 활동

오드리 부투스
캐나다 몬트리올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조프 피터 노먼 브래들리
영국 볼튼 출생
일본 도쿄에서 활동

마르코 브루노
이탈리아 토리노 출생
카타르 도하와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매슈 부처
영국 런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C

벤 칼렌더
영국 달링턴 출생
영국에서 활동

시모네 카레나
이탈리아 토리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마르첼로 카르피노
이탈리아 시라쿠사 출생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활동

파블로 카스트로
아르헨티나 산 후안 출생
미국 뉴욕,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알렉스 찰머스
뉴질랜드 황아레이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장현배
미국 인디애나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주오판 첸
중국 난징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조규형
대한민국 태안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조민석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조토니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최빛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최혜원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최선웅
대한민국 포항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최태운
미국 산 마테오 출생
미국 뉴욕,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최영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최윤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전재성
대한민국 인천 출생
캐나다 워니펙에서 활동

추영룡
대한민국 부산 출생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

조선 익스체인지
2009년 싱가포르에서 창설
www.chosonexchange.org

캘빈 추아
싱가폴 출생
싱가폴에서 활동

전해리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데이비드 R. 콜
영국 런던 출생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

알레한드로 아이에크 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출생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클라우디아 콘소니
이탈리아 끼아벤나 출생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

컨스트럭트랩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
독일 베를린, 벨기에 헨트, 스위스 프리부르,
포르투갈 리스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전역에서 활동

찰리 쿠베
영국 런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가이아 크로첼라
이탈리아 가바르도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D
안슈만 다스굽타
인도 출생
인도 산티니케탄에서 활동

야코보 다비드
이탈리아 몬테벨루나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니콜라 카발리에리 드 파세
미국 보스턴 출생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활동

마크 윌리엄 더베니
영국 출리 출생
영국 브라이튼에서 활동

마틴 드브리엔트
독일 잘펠트 출생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동

앤드류 디킨슨
영국 사우스 웨일즈 출생
영국에서 활동

킬리언 도허티
북아일랜드 데리 출생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활동

앤디 다이
영국 커콜디 출생
영국에서 활동

E
오리아나 엘리사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생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활동

F
지아코모 파이엘
이탈리아 나폴리 출생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동

아르노 페롱
프랑스 파리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프리다 포베리
스웨덴 스트롬스타드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마리아리사 폰타나보나
이탈리아 라벤나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안토니 폰테노
미국 루이지애나 빌 플레트 출생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G
마르코 감바레
이탈리아 마젠타 출생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

키아라 가빈
이탈리아 베니스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다비드 자코메티
이탈리아 코네글리아노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에미네 고르쿨
터키 이스탄불 출생
터키 이스탄불에서 활동

안티고니 고우타쿨리
그리스 테살로키니 출생
영국 브라이튼에서 활동

루팔리 굽테
인도 뭄바이 출생
인도 뭄바이에서 활동

H. 멜템 Ö. 귀엘
터키 이즈미르 출생
터키 이즈미르에서 활동

H
한지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한상욱
대한민국 대구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한성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지시 한
중국 베이징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마이자-리사 하르주
캐나다 오크빌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피터 하스델
호주 출생
홍콩에서 활동

리아넌 모건-해치
영국 첼트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몰리 헤이워드
영국 리즈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홍어린
독일 아헨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황호빈
중국 옌지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황두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황지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황나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현지호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
루마 이프람
요르단 암만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임상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마티아 인셀비니
이탈리아 브레시아 출생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

스텔라 이오아니도우
그리스 아테네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
맷 제임스
캐나다 온타리오 출생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

장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장영규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전진홍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전유진
대한민국 강릉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정혜윤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정미선
대한민국 제주 출생
대한민국 제주에서 활동

단 예센
덴마크 바일레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조기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주다운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몰리 저지
영국 런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정동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K
강이륜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뉴욕,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강영민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하니프 모하메드 카라
우간다 봄보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아말리아 카토포디스
그리스 아테네 출생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금혜지
대한민국 제천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아라
대한민국 서울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김아연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대천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동세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김은정
대한민국 대전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김한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재경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진형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김주영
대한민국 부산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정윤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

김강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균철
대한민국 광명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성수
대한민국 인천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소영
대한민국 대전 출생
대한민국 서울,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

김선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태동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태윤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테드 킴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김용
대한민국 의성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김유빈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히토미 코야마
일본 도쿄 출생
일본 교토, 오사카에서 활동

권민호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안드레아스 랑
독일 오버하우젠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조너선 리슬리
영국 리즈 출생
영국 웨더비에서 활동

앤드류 르클레어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 출생
미국 뉴욕주 뉴욕에서 활동

이택광
대한민국 칠곡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아람
대한민국 대전 출생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

이보배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창주
대한민국 목포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동용
대한민국 김포 출생
대한민국 김포에서 활동

이해반
대한민국 철원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하영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혜원
대한민국 안동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현희
대한민국 대전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현희
대한민국 태백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제니퍼 리
미국 워싱턴DC 출생
미국 뉴욕,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정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지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진혜
대한민국 창원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진형
대한민국 괴산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지윤
대한민국 서울 출생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

이상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상엽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성원
대한민국 청주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소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성일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포천에서 활동

이선우
대한민국 수원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태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이용주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라이언 레이필드
미국 미주리 출생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팀 레이
영국 볼턴 출생
영국에서 활동

칼 렌턴
영국 우스터 출생
영국에서 활동

크리스티아노 레프라티
이탈리아 레코 출생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활동

임영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돌프 안 헨드릭 테 린텔로
네덜란드 올덴잘 출생
영국에서 활동

살롯 로드
영국 베리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크레이그 로
영국 맥스버러 출생
영국 노스요크셔에서 활동

샤오수안 루
중국 베이징 출생
홍콩에서 활동

라파엘 루나
엘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피터 린치
미국 앨버커키 출생
스웨덴 스톡홀름, 쇠데르만란드주에서 활동

M

마준혁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

레오니다스 마틴
스페인 사라고사 출생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활동

다비드 오르테가 마르티네스
멕시코 멕시코시티 출생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활동

다비드 마세리니
이탈리아 베르가모 출생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활동

코린 마즐리
이탈리아 라스페치아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하스브룩 밀러
미국 뉴저지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미미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데이비드 유진 문
미국 밀워키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모스피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로버트 멀
영국 케임브리지 출생
영국 런던,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켄트 맥किन 조지 먼들
캐나다 워니팩 출생
홍콩과 캐나다 워니팩에서 활동

루시 머스그레이브
영국 레밍턴스파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N

스탄코미르 니치에야
폴란드 비엘라와 출생
폴란드 오폴레에서 활동

카를로타 노벨라
이탈리아 발다그노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베에트로 난지안테
이탈리아 나폴리 출생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동

마노즈 NY
인도 케랄라 출생
인도 델리에서 활동

O

오대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아이셀린 고제 일디즈 오구잘프
터키 이스탄불 출생
터키 이즈미르에서 활동

오주영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오민욱
대한민국 부산 출생
대한민국 부산에서 활동

오상훈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앤 오록
아일랜드 출생
터키 이즈미르에서 활동

에이멘 H.오즈칸
터키 이즈미르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P

리타 파이사오
벨기에 브뤼셀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마리아 크리스티나 팔롬비에리
이탈리아 테라모 출생
이탈리아 로마와 벨기에 브뤼셀,
미국 뉴욕에서 활동

박정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다함
대한민국 인천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동민
대한민국 영덕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혜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제니퍼 박
미국 뉴욕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종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경
대한민국 통영 출생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활동

박세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성태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박수연
모로코 카사블랑카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루카스 파워
출생
스위스 취리히에서 활동

마크 피어스
영국 런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애니 페드렛
캐나다 토론토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지아다 페테를레
이탈리아 볼자노 출생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활동

루카 필리
이탈리아 라스페치아 출생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활동

조안느 푸쟁
프랑스 툴루즈 출생
프랑스 툴루즈에서 활동

마테우스 포자
폴란드 사노크 출생
스코틀랜드 에데보리에서 활동

클라우디아 포차나
이탈리아 베니스 출생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활동

R
토마스 랜달 페이지
출생지 부재
영국 런던에서 활동

라오미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제라드 라인머스
호주 호바트 출생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

크리스 로
미국 시애틀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알렉산더 뢰머
독일 베를린 출생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

알레산드로 루소
이탈리아 브린디시 출생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활동

류혜민
대한민국 안산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류민주
대한민국 수원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S
루이지 사비오
이탈리아 피렌체 출생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오스트리아 린츠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켈리 스콧
오스트레일리아 출생
터키 이즈미르에서 활동

서동진
대한민국 강릉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서현석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서원태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천안에서 활동

클레어 셰퍼드
스코틀랜드 던디 출생
영국에서 활동

프라사드 세티
인도 뭄바이 출생
인도 뭄바이에서 활동

심훈용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심영규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시마다 요시코
일본 도쿄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신혜원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신현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신인섭
대한민국 청주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상그람 시르케
인도 출생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리오 제임스 스미스
이탈리아 베니스 출생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활동

손현선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송호준
대한민국 광주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송률
대한민국 대전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송성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송예환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주세페 스타포네
프랑스 끌뤼스 출생
이탈리아 로마,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

사투 스트릿필드
영국 런던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서예례
대한민국 서울 출생
미국 뉴욕에서 활동

하이드 스베닝센-카이트
덴마크 출생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활동

T

알렉스 타케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이팩 투렐리
터키 이스탄불 출생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

U

토시아 우에노
일본 미야기 출생
일본 요코하마에서 활동

프란체스카 올리비
이탈리아 Monza 출생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V

프란시스코 레이날도 모랄레스 발디비아
칠레 산티아고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알렉산더 발렌티노
이탈리아 바리 출생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동

다비드 발데비
스웨덴 스톡홀름 출생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활동

칼-요한 베스텔룬드
스웨덴 세브데 출생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이안 벨더
스페인 마드리드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토비아스 베스텔룬드
스웨덴 우메아 출생
스웨덴 우메아에서 활동

안재우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알리샤 비소카
폴란드 리브니크 출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

Y

양명심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양노라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임동우
캐나다 토론토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윤정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툼 영
영국 사우스햄튼 출생
영국 런던에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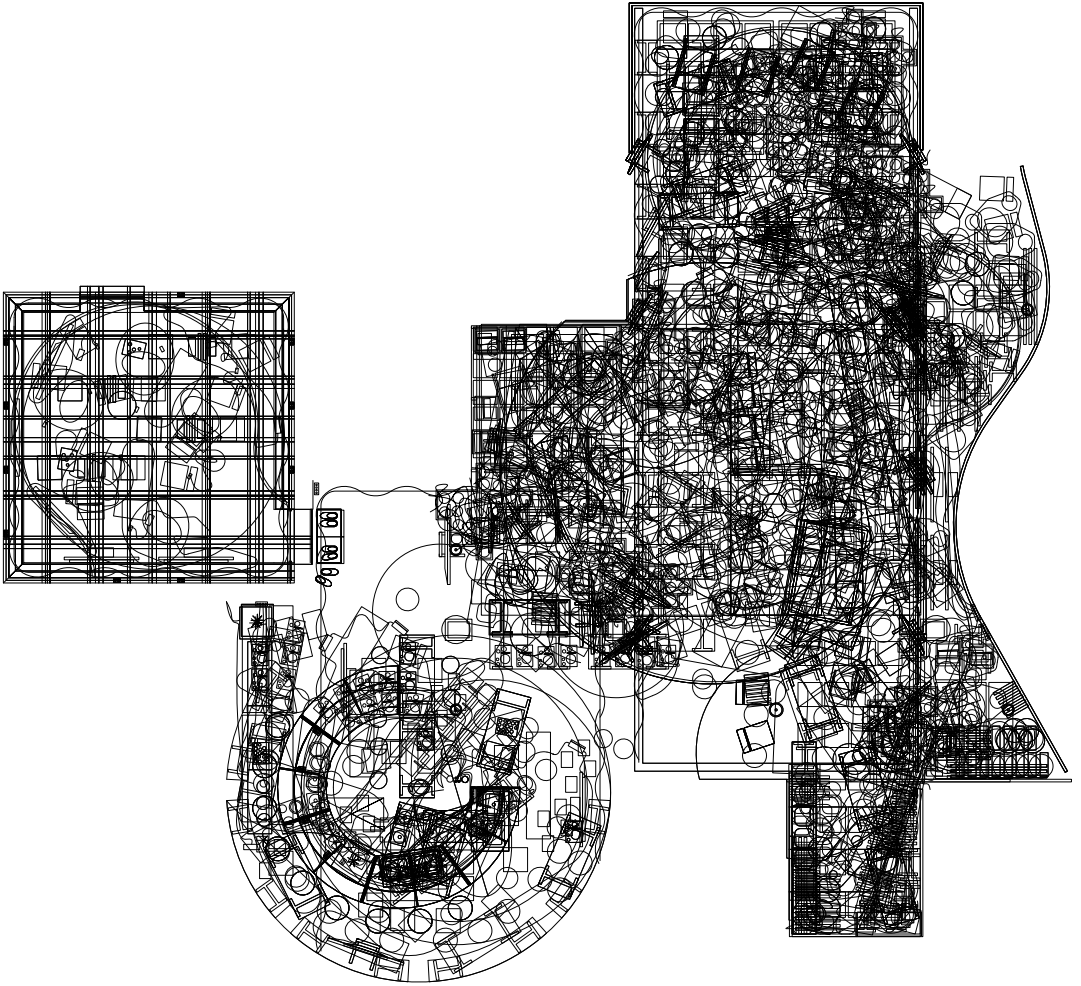
Z

조윤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조경진
대한민국 서울 출생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

네이키드 플랜 —
미래학교 한국관

송률, 크리스티안 슈바이처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02	02
03	03	03	03	03	03
04	04	04	04	04	04
05	05	05	05	05	05
06	06	06	06	06	06
07	07	07	07	07	07
08	08	08	08	08	08
09	09	09	09	09	0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4
25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1		31		31	

칠월	팔월	구월	십월	십일월	십이월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02	02
03	03	03	03	03	03
04	04	04	04	04	04
05	05	05	05	05	05
06	06	06	06	06	06
07	07	07	07	07	07
08	08	08	08	08	08
09	09	09	09	09	09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24	24	24	24	24	24
25	25	25	25	25	25
26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8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0
31	31	31	31	31	31

미래학교
제17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감독: 신혜원
전시작가: 미래학교 참여자
www.korean-pavilion.or.kr



www.futureschool.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인 후원



WOORI BANK AMOREPACIFIC

후원

ALESSI Duomo&Co. **SAMSUNG**

지원

KOTE Lab | 삼성 | VTOUCH | 법무법인 디라이트 | 복순도가 | 티엔엘 다산아트

ISBN: 978-0-9915263-2-1

가격: ₩5,000



9 780991

526321

50650>